조선

LPG선 발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왔다

2013. 10. 02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미국 LPG수출량 급격히 증가

미국 Shale gas와 더불어 Tight Oil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프로판과 부탄과 같은 LPG생산량도 부수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LPG 순수출로 전환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LPG수출 상위 국가로 변모되었다.

미국은 2015년까지 LPG 수출량을 약 10만톤/연 가량 늘릴 전망인데 이는 현재 기준으로 세계 LPG 해상수송량의 15%에 해당한다. 세계 LPG 해상수송량은 2007년 5천만톤에서 지금은 6,600만톤 수준이며 2015년이면 1억톤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 휴스톤에 위치한 LPG 수출터미널 운영 업체인 Enterprise Products Partners와 Targa Resources는 수출터미널 규모를 두 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말이면 파나마운하가 확장되므로 북미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LPG 수송 기간은 42일에서 25일로 대폭 단축된다.

폭발적인 LPG 생산량 증가와 운송기간 단축은 아시아국가들의 미국산 LPG 수요를 높여줄 것이다. 이는 LPG선박 수요가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의미한다. LPG는 저개발국가에서 가정용 연료로 사용되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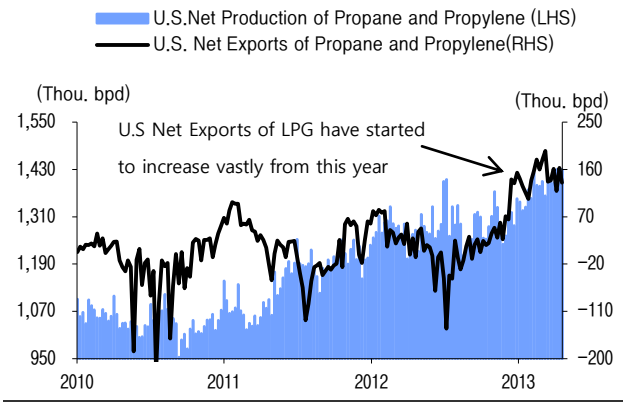
VLGC에 이어 중형 LPG선 발주량도 곧 늘어날 전망

LPG선 분야의 선두 조선업체는 현대중공업(84K VLGC)과 현대미포조선(40K이하)이다.

올해 38-84K급 LPG선 발주량은 36척이며 이중 VLGC는 28척 발주되었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 포함)은 VLGC 28척 중 19척(60K 2척 포함)을 수주했다. 반면 40K 이하 중형 LPG선 발주량은 아직 8척에 불과하다. 미국 LPG수출량 중 단거리 수송 비중도 크다. 따라서 VLGC 뿐 아니라 40K 이하 중형 LPG선 발주량이 곧 크게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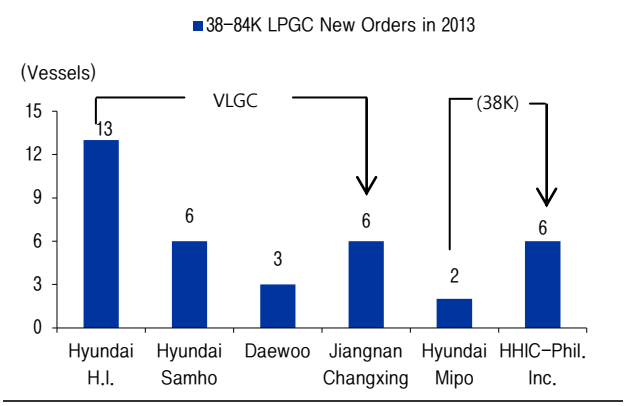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LPG선 분야 1위 업체이므로 검증된 Eco-design을 바탕으로 중형 LPG선 수주 및 선가상승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올해 봄부터 38K 도크 Slot 중 하나를 LPG선 전용으로 전환해 수익성 개선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1] U.S. LPG Net Production and Net Exports



자료: EI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LPG Carrier New Orders in 2013



자료: Clarkson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현대중공업 2척은 60K)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